

일반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도시새뜰마을사업 주체 간 네트워크 특성 및 역할*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Actors Involved in the Network of
Urban Saetul-village Project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김홍주**, 이영환***, 임정민****, 백혜선*****

도시새뜰마을사업은 주거지원사업의 시각지대인 도심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재생하고자 시작된 정책사업이다. 본 연구는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실행과정에서 중요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는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마을대표, 공무원의 네트워크 내의 각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았다. 2015년 시작된 도시새뜰마을사업은 2019년 대부분 준공단계로, 전체 30개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실제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초기정책수립단계에서 의도했던 바와 같이 각 주체들이 역할을 수행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새뜰마을사업 초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체별 역할을 네트워크 측면에서 규명한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도시새뜰마을사업, 네트워크분석, 활동가, 총괄코디, 공무원, 마을대표

* 이 논문은 토지주택연구원(2019), 「도시새뜰마을사업 성과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khjkahn@lh.or.kr).

***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takiron@lh.or.kr).

****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jmlim@lh.or.kr).

*****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hsbaik@lh.or.k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새뜰마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부가 공동으로 2015년 시작한 사업으로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역을 추가로 발굴한 사업이다. 당시 명칭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빈곤지역, 달동네, 쪽방촌과 같은 노후불량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복지·문화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이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2015년에 30개, 2016년 22개, 2017년 16개, 2019년 30개로 총 98개가 선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업대상지역은 평균적으로 약 390여 가구, 인구는 평균 750여 명으로 타 사업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은 마을단위사업이다 (김홍주 외, 2017).

도시새뜰마을사업은 사업선정 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물리적 부분과 사회경제적 부분을 구분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대폭 넓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를 선임하여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와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사업발굴과 역량강화, 공동체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를 위해 주민워크숍, 회의, 사업제안, 사업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체계에 다양한 전문가와 활동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시도한 도시새뜰마을사업이 과연 정책 의도대로 진행되었는지 실증해 보고자 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이를 검증해 보기 위해 2015년 최초 지정되어 2019년 완료된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의 참여주체들 간 관계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매뉴얼에서 제시된 주체들의 역할과 실제 사업에서는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의 관계네트워크 구조에서 각 주체별 역할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15년 도시새뜰마을사업 대상지인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7월에서 8월 동안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부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주민대표, 공무원, 주민으로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자료구축은 3장에서 기술할 예정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도시새뜰마을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시작된 후 LH공사가 사업관리를 담당하면서 수행한 과제를 제외하면 타 기관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초기 정책방향 및 평가체계를 연구한 임정민 외(2016),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활성화방안을 연구한 김홍주 외(2017), 2015년 도시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성과 및 평가로 이영환 외(2019)가 있다. 그리고 도시새뜰마을사업을 대상으로 한 관련 논문은 광주 발산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 전희재 외(2019), 동해시 새뜰마을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의 계획과 실천정도를 분석한 박훈·이상수·김정현(2018), 이상수·박훈(2019) 정도가 있다. 이 외에도 강기훈·김성길(2019)은 농촌새뜰마을사업 중 부여군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유사한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주체들 간 네트워크분석을 한 연구로는 김어진·구자훈(2019)이 있는데, 순천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참여주체들 간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여 중요주체가 네트워크에서 사라졌을 경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성근·김태구·이관률(2011)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서 참여자들의 협력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어떤 참여자가 협력의 주요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성문·강신겸(2015)는 광주 양림동 도시재생사업의 관광 분야에서 참여주체들의 협력과 영향력 네트워크를 분석하

여 중심주체를 도출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른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주체들 간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중요주체 및 주체들의 역할을 분석하여 참여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도시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또한 사업참여주체들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연구한 사례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리고 참여주체들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체들의 역할을 전체 관계망 속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 점도 차별화 요소이다.

2. 도시새뜰마을사업의 특성

1) 도시새뜰마을사업 개요

도시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는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사업이다. <표 1>은 도시새뜰마을사업 매뉴얼의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이다.

기존 정부정책, 지자체 지원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달동네, 쪽방촌 등과 같이 주거환경이 극히 취약한 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 읍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활력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새뜰마을사업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중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및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다양한 물리적,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도시새뜰마을사업 선정 기준 및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선정기준	대상 지역의 경제·사회적 지표, 물리적 요건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서면+현장평가 ※ 대상 지역 신청 권장 물리적 지표로 3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만족 • 불량도로(4M미만도로)에 접한 주택비율 50%이상 • 노후주택비율 70%이상 • 상하수도, 도시가스 미설치 비율 30%이상
사업지원	국비지원 최대 상한액 7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
지원내용	• (안전확보) 주민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예방, 노후시설(건물, 축대)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위생 인프라)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공동생활홀 조성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 (노후·위험주택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주로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지원 •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지원

주: 2015년 사업매뉴얼의 내용을 재편집함.

2)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사업추진체계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사업추진체계는 사업매뉴얼에 〈표 2〉와 같이 사업추진조직, 자문단, 사업추진협의회로 구분하고 각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추진조직으로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행정, 기술용역사로 이들은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다. 자문단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집수리 등의 세부 사업 실행과정에서 필요한 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추진협의회는 주요의사결정기구 역할로 사업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정책적 예시로 사업지역의 여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에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표 2〉 사업추진 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

조직	자격 및 구성	역할
사업추진조직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관련 활동단체), 행정, 기술용역사(건축·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초기단계의 사업기반 마련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등 물리적 부분의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자문단	집수리지원사업,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필요시 설치)	각 사업 분야에 대하여 사업단계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지원
사업추진협의회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주민(주민협의회 대표 등), 행정, 기술용역사, 시공업체, 지역단체(사업참여)	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 필요한 협의 및 주요한 의사결정기구 역할

자료 임정민 외(2016)

3) 도시새뜰마을사업 2015년 선정 지역 사업추진체계 현황

2015년 선정된 30개 대상지역은 서울종로구, 부산 사상구·사하구·서구·영도구, 대구중구, 인천 동구·부평구, 광주 남구·서구,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포천, 강원도 강릉·동해·영월·태백, 충북 제천, 충남 논산, 전북 익산·전주, 전남 여수·순천, 경북 김천, 경남 양산·진주·창원, 제주시이다.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진행은 선정 이후 사업추진체계구축-마스터플랜수립-사업실행-운영관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2015년사업은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단계에 있다.

2015년 선정지역들의 사업추진 흐름을 먼저 도시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 선정 후 지자체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 먼저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기술용역사를 선정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을 준비하게 된다. 총괄코디네이터는 국토부가 2015년 7월에 임명하였고 마을활동가는 지자체의 자율로 직접 고용하거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정에서 채용하는 방식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총괄코디네이터는 대학교수가 50% 정도이고 사업완료 때까지 활동하였다. 마을활동가는 2015년 말까지 19개 지역만 고용되었고 이후 증가하여 사업완료 당시는 전 지역에 마을활동가가 있었다. 지자체 내 행정추진체계는 전담부서, 도시

재생과 신설, 부서별 협업체계(TF), 중간지원조직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행정체계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평균 6개월)으로 사업의 연속성의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주민협의체 구성 과정을 보면, 주민협의체를 사업초기에 구성한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구성한 경우, 사업진행 과정에서 세부사업단위로 구성한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계약체결은 2016년 상반기까지 이어졌고, 수립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었다. 마스터플랜은 물리적 계획과 사회경제적 계획의 통합발주(13개 지역)와 분리발주(17개 지역)가 이루어졌고 이후 변경은 16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만들어진 세부사업은 총 721건이었고 이 중에서 기초생활인프라사업(안전, 생활, 위생) 348개, 주거여건개선사업(노후위험주택, 집수리) 95개, 공동체지원사업(일자리, 휴먼케어, 주민역량) 278개로 집계되었다(이영환 외, 2019). 주민, 활동가, 총괄코디,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계획하도록 유도한 공동체지원사업은 역량강화 64개, 일자리 57개, 복지 56개, 교류 42개, 홍보 21개, 문화 10개, 환경 11개, 안전 6개, 사후관리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균형위가 개최한 교육 및 워크숍이 1년에 2회 이상 실시되었는데, 공무원, 총괄코디, 마을대표, 마을활동가들은 평균 2회 정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이영환 외, 2019).

종합해 보면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추진조직이 정비가 된 것은 각 지역별로 시기별 차이는 있으나 대략 1~2년 정도가 소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매뉴얼에서 제시되었던 사업전담부서, 총괄코디네이터-마을활동가, 주민(주민모임, 주민협의체), 지원그룹(용역사, 단체 등)의 구성·운영은 지역별로 형성된 시기와 형태의 차이를 보였다.

3. 사업참여주체 간 네트워크 분석 자료구축

1) 자료구축

〈표 2〉에서 보여지듯 사업매뉴얼의 제시된 사업추진체계는 사업추진조직, 자문단, 사업추진협의회로 구분하였다. 각 조직별로 참여주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사업종료 시점에서 보니 특정 지역에서는 자문단이나 집수리위원회, 현장활동가 등이 만들어졌더라도 30개 지역에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참여주체는 공무원,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마을대표였다. 따라서 설문조사 대상은 사업초기 마스터플랜 수립단계부터 사업시행까지 주요 사업기획,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의 수요를 사업화하는 역할을 하였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지자체 사업 담당 공무원,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에 선정된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30개 지구의 핵심 주체를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사 대상자 수는 공무원, 총괄코디, 활동가를 선정지구별로 1인씩 지정하기 때문에 주체별로 30인, 총 90인이 모집단이고, 주민의 경우에는 선정지구 내 거주자의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 주체와는 달리 1지구당 30명씩 총 900인으로 계획하였다. 최종수집된 설문조사 부수는 공무원 30인, 총괄코디 29인, 활동가 33인, 주민 916인이 집계되었다. 조사방법은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원이 참여주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공무원, 총괄코디 일부는 서면조사하였다.

도시새뜰마을사업 주체 간 네트워크는 4가지 형태로 설정했는데, 이는 주체들이 보여줄 수 있는 행위에 기반하였다. 첫째, 사업과정에서의 참여자들 간 교류네트워크로, 정보나 의사소통을 위한 회의나 모임 횟수를 조사하였다. 이는 다자간 참여과정에서 정보교류의 양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참여 과정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받은 주체와 갈등

〈표 3〉 교류 네트워크 매트릭스 예시

구분	공무원	총괄코디	마을주민	마을 활동가	용역기관	중간지원 조직	지자체 타 부서	국토부
공무원	0	4	4.26	5.44	3.68	2.26	1.04	1.18
총코	6.6	0	4.48	7.8	4.66	2.58	0.9	0.84
마을주민	1.53	0.83	0	3.15	0.73	0.39	0.07	0.06
마을 활동가	2.5	3.95	5.03	0	1.84	0.63	0.35	0.09
용역기관	4.26	0.83	0.9	0.83	0	0.83	0.9	.03
중간지원 조직	0.83	4.26	2.58	0.9	0.83	0	0.83	0.83
지자체 타 부서	2.58	2.58	0.83	5.03	0.9	2.58	0	
국토부	0	0	4.26	2.58	0.83	4.26	0	0

을 겪은 주체를 조사함으로서 갈등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사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는 주체를 파악함으로서 갈등과 협력의 구조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주체가 판단하는 각 주체별 협력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점수화하였다. 이는 주체 간 네트워크를 4가지로 구분하여 네트워크의 양적 측면(교류)과 네트워크의 질적 측면(도움, 갈등, 협력) 구조를 모두 보고자 한 것이다.

주체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아래와 같이 교류, 도움, 갈등, 협력의 정도를 질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주체들과 한 달에 몇 번 정도 회의나 모임을 가졌습니까?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주체와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주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새뜰마을사업 전 과정을 고려했을 때 귀하와 아래 주체 간 협업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지자체 사업담당 공무원,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네트워크 매트릭스는 <표 3>과 같다.

2) 분석방법

주체 간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네트워크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프로그램은 Netmine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내용은 연결망(교류, 도움, 갈등, 협업)을 도출하고 각 연결망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네트워크 구조 분석은 네트워크 밀도, 집중도, 중심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밀도는 한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된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네트워크 내 전체 구성원이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된다(손동원, 2012). 밀도가 높을수록 행위자들 간 관계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text{밀도} = \frac{k}{g(g-1)/2}$$

(k: 전체 링크수, g: 전체 노드수)

집중도는 네트워크 전체가 하나의 중심으로 집중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다. 중심성이 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점이 중심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집중도는 한 네트워크 전체가 ‘중심’에 집중되는 정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소수의 노드들이 집중적으로 교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다양한 노드들 간 교류가 높을수록 집중도는 낮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중도는 아래 식과 같다.

$$C = \frac{\sum_{i=1}^g (C_D(n^*) - C_D(n_i))}{((g-1)(g-2))}$$

[$C_D(n^*)$]: 네트워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중심성 값,

$C_D(n_i)$: 행위자 i 의 중심성 값, g : 전체 노드수

중심성은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다(손동원, 2012).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결정도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을 사용하였다. 연결중심성은 한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들의 합으로 얻어지기에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마만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 그 점이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아래의 식은 연결중심성을 구하는 방법이다.

$$C_A = \frac{A\text{의 절대적 연결정도}}{(\text{네트워크내 전체 노드의 수} - 1)}$$

반면 위세중심성은 a 라는 노드에 직접 연결된 노드들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두는 개념이다. 위세중심성의 일반적인 형태는 보나시치 권력지수 또는 보나치시 중앙성지수라고도 부른다. 이 지표는 자신의 연결정도중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 행위자의 영향력을 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위세중심성이 높으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단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자로 해석된다. 행위자 i 는 위세 높은 많은 사람들 j 로부터 많은 관계를 수신할수록 위세가 높아진다.

$$P_i = \sum_{j=1}^{N-1} P_i Z_{ji}, \quad 0 \leq P_i \leq 1$$

4. 사업참여주체 간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교류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 4〉는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주요 참여주체인 공무원, 총괄코디네이터, 마을주민, 마을활동가들이 주로 한 달 동안 회의나 모임 등으로 교류하는 주체들과의 교류 순위를 집계한 것이다. 총괄코디네이터와 공무원은 타 주체와의 교류, 즉 한 달에 평균적으로 가장 모임을 많이 갖는 주체였고, 그 다음으로 마을활동가-마을대표-용역기관-중간지원조직 순서이다. 총괄코디는 마을활동가와 한 달에 약 8회(일주일에 2번), 공무원과 6회의 모임을 가졌고, 마을주민과 용역기관과도 4회 이상 모임을 갖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마을대표는 마을활동가와 3회 정도를 제외하면 타 주체와의 모임 횟수는 적은 반면, 마을활동가는 마을주민과 5회 정도로 가장 많은 모임을 했으며, 그 다음은 총괄코디와 용역기관 순서이다.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사업참여주체들 간 네트워크의 연결망은 교류의 유무를 나타내는 연결망, 교류 횟수를 적용한 위세중심성 연결망, 교류하는 주체들의 수를 고려한 디그리중심성 연결망으로 표현하였다. 첫 번째 연결망을 보면 도시새뜰마을사업에 참여하는 8개 주체는 모두 서로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교류 횟수를 적용한 위세중심성 연결망을 보면 마을주민, 마을활동가가 교류의 중심에서 다른 주체들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디그리중심성 연결망을 보면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공무원, 총괄코디가 다양한 주체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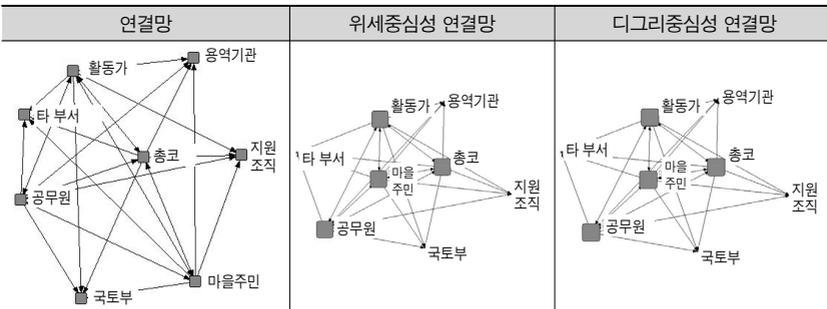
모임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여주는 밀도는 1.266이고 한 주체에 집중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집중도는 61.278이었다. 이는 모임네트워크의 각 노드 간 연결은 많이 되어 있지만 특정 노드로의 집중 정도가 약 61%를 설명한다고 해석된다. 중심성 분석은 교류의 강도를 고려한 위세중심성과 연결된 주체수와 연결된 주체의 강도를 모두 고려한 위세중심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 주요 참여주체들과 타 주체들과의 교류 순위

순위	마을대표	마을활동가	총괄코디	공무원
1	마을활동가(3)	마을주민(5)	마을활동가(7.8)	마을활동가(5.4)
2	공무원(1.5)	총괄코디(4)	공무원(6.6)	마을주민(4.2)
3	총괄코디(0.8)	공무원(2.5)	용역기관(4.6)	총괄코디(4)
4	용역기관(0.7)	용역기관(1.8)	마을주민(4.4)	용역기관(3.6)
5	중간지원조직(0.4)	중간지원조직(0.6)	중간지원조직(2.5)	중간지원조직(2.2)

* ()은 한 달 동안의 교류 횟수를 의미함.

〈표 5〉 교류네트워크 연결망도



교류의 강도 측면에서는 마을활동가-마을주민-용역기관-공무원-총괄코디-중간지원조직-지자체 타 부서-국토부 순으로 중심성이 높았다. 교류의 횟수와 강도를 모두 고려하면 총괄코디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위로 마을활동가-공무원-마을주민-용역기관-중간지원조직-지자체 타 부서-국토부이다. 이는 마을주민과 마을활동가가 교류의 횟수는 많으나, 그들과 교류하는 주체들은 타 주체와의 교류가 적기 때문이다. 가령 마을주민은 마을활동가와 교류 횟수가 많은데, 마을활동가는 다른 주체, 즉 용역기관, 공무원, 총괄코디, 지자체 중간지원조직과의 교류 횟수가 적으면 위세중심성이 낮아지게 된다. 반면 위세중심성이 높은 총괄코디는 교류의 횟수는 높지 않으나 교류하는 행위주체가 다른 주체와 교류 횟수가 높은 마을활동가, 공무원, 용역기관이어서 교류네트워크 측면에서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도움네트워크 분석 결과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주요 행위자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조언이나 컨설팅을 받게 될 경우를 보여주는 도움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 주요 주체별로 도움을 요청한 총 횟수는 마을대표가 123회, 마을활동가 96회, 총괄코디 78회, 공무원 96회로 마을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은 주체별 도움을 받는 주체의 순위를 집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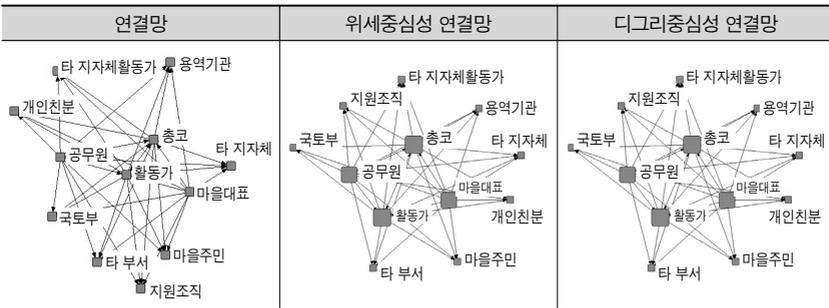
주체별 도움을 받는 주체의 순위를 보면 마을주민이 1순위일 때가 많은데, 마을주민이 가장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응답한 주체는 마을활동가, 총괄코디, 공무원이었다. 5순위까지를 집계했을 때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용역기관, 총괄코디, 중간지원조직이 순위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다섯 주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도움을 받는 주체로 공무원, 지자체 타 부서, 국토부(지원기구), 개인적 친분도 일부 있으나 이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도시새뜰마을사업의 도움을 주고받은 주체들 간 도움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전체 도움네트워크의 밀도는 2.788이고 한 노드에 집중되는 집중도는 66.402였다. <표 7>은 도움네트워크의 연결망과 파워디그리중심성의 값을 표현한 연결망, 디그리중심성의 값을 표현한 연결망이다. 도움네트워크에서 다른 주체들의 도움을 받는 주체가 많을수록 높은 디그리중심성 순위는 마을주민-용역기관-마을활동가-총괄코디-중간지원조직-지자체 순서였다. 그리고 위세중심성 순위는 마을활동가-마을대표-마을주민-총괄코디-공무원-용역기관이었다. 이는 마을주민이 다른 주체들로부터 도움을 가장 많이 요청받는 주체이지만 도움네트워크 전체로 본다면 마을활동가가 다양한 주체로부터 자주 도움 요청을 받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6〉 주체별 도움을 받는 주체 순위

순위	마을대표	마을활동가	총괄코디	공무원
1	마을활동가	마을주민	마을주민	마을주민
2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
3	옹역기관	옹역기관	옹역기관	옹역기관
4	총괄코디	총괄코디	총괄코디	총괄코디
5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표 7〉 도움네트워크 연결망도



3) 갈등네트워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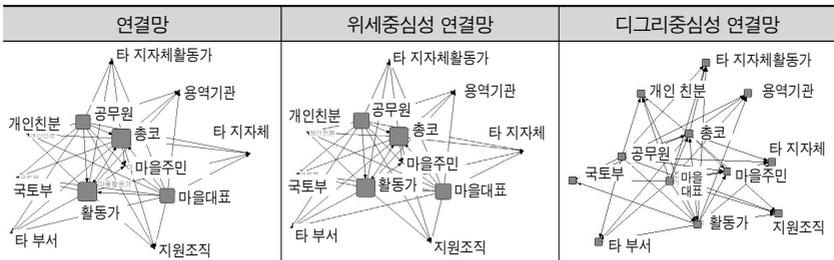
〈표 8〉은 주체별 갈등을 발생한 적이 있는 주체 순위를 집계한 것이다. 마을대표, 마을활동가, 총괄코디, 공무원 중에서 갈등발생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한 주체는 마을대표로 총181회, 총괄코디 68회, 마을활동가 52회, 공무원 45회로 주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앞에서 도움을 요청한 횟수에서도 마을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갈등이 발생한 횟수도 마을대표가 타 주체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았다. 이를 보면 도시새뜰마을사업에서 마을대표가 가장 활동성이 강한 주체가 아닌가 추측된다.

주체별로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는 주체들의 순위를 보면 가장 갈등을 많이 야기한 주체는 마을주민과 마을활동가이고 옹역기관, 총괄코디, 중간지원조직 순서이다.

〈표 8〉 주체별 갈등을 야기한 주체 순위

순위	마을대표	마을활동가	총괄코디	공무원
1	마을주민	마을주민	마을주민	마을주민
2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
3	용역기관	용역기관	용역기관	용역기관
4	총괄코디	총괄코디	총괄코디	총괄코디
5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타 부서/ 국토부	중간지원조직/ 타 부서/ 국토부

〈표 9〉 갈등네트워크 연결망도



주체별 갈등을 나타내는 갈등네트워크의 전체 밀도는 2.492이고 한 주체로 집중화되는 집중도는 89.143이었다. 〈표 9〉는 갈등네트워크의 연결망과 위세중심성 연결망, 디그리중심성 연결망을 도식화한 것이다. 디그리중심성 연결망은 갈등을 있는 주체들의 수가 높은 주체를 표현한 것으로, 마을주민-마을활동가-용역기관-총괄코디-중간지원조직-지자체 타 부서 순서였다. 갈등을 있었던 주체를 보여주는 디그리중심성에서 공무원은 제일 순위가 낮았다. 위세중심성의 순위는 마을대표-마을주민-마을활동가-총괄코디-용역기관-공무원 순서였다. 갈등네트워크의 중심적 주체는 갈등을 다양한 주체와 겪은 주체는 마을주민이나 마을활동가, 용역기관이고 이들의 갈등의 강도 측면에서 본다면 마을대표가 다양한 주체와 갈등을 겪는 횟수도 높다고 해석된다. 또한 갈등을 겪는 주체 수에서는 공무원이 6위권 밖에 있으나 갈등

의 강도까지를 고려하면 공무원은 6위가 되는데, 갈등의 강도까지 고려해도 갈등네트워크에서의 위상은 낮았다. 도시새뜰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공무원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협업네트워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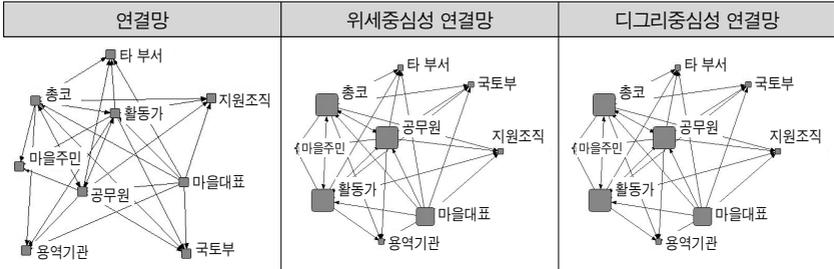
〈표 10〉은 주체별 도시새뜰마을사업의 협업정도를 집계한 것이다.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요 주체들이 느끼는 타 주체와의 협업정도는 마을활동가와 총괄코디가 협업의 정도를 6.2로 높게 평가했고 상대적으로 마을대표는 주체 간 협업의 정도를 10점에서 5.2로 낮게 평가하였다. 각 주체별로 협업의 순위를 보면 마을대표는 마을활동가와의 협업을, 마을활동가는 마을주민-공무원과의 협업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총괄코디는 공무원, 공무원은 마을활동가와의 협업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요 주체들이 느끼는 타 주체와의 협업정도를 나타내는 협업네트워크의 밀도는 2.314, 집중도는 28.03이었다. 〈표 11〉은 협업네트워크의 연결망, 위세중심성 연결망, 디그리중심성 연결망이다. 디그리중심성의 순위는 용역기관-중간지원조직-마을활동가-공무원-총괄코디-마을주민-중간지원조직으로, 협업에 대한 평가로는 용역기관이 가장 협업을 잘 하는 주체로 나타났다. 위세중심성은 마을활동가-공무원-총괄코디-마을대표-중간지원조직-마을주민 순서로 협업을 잘 하는 주체와 연결

〈표 10〉 주체별 도시새뜰마을사업 전과정에서 느끼는 협업정도 순위

순위	마을대표(5.2)	마을활동가(6.2)	총괄코디(6.2)	공무원(6.1)
1	마을활동가	마을주민/공무원	공무원	마을활동가
2	공무원	총괄코디	마을활동가	총괄코디
3	총괄코디	용역기관	용역기관	용역기관
4	용역기관	중간지원조직	마을주민	중간지원조직
5	중간지원조직	국토부	중간지원조직	마을주민

〈표 11〉 협업네트워크 연결망도



된 주체들의 협업정도도 같이 보았을 때는 마을활동가가 가장 협업을 잘하는 주체였다.

5) 주체 간 네트워크 중심성과 사업평가 결과 비교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주체 간 네트워크는 사업평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비교해 보았다. 〈표 12〉는 주체별 교류, 도움, 갈등, 협업네트워크의 위세중심성 값과 새뜰마을사업 평가점수를 정리한 것이다. 교류네트워크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총괄코디는 타 주체와 도움을 많이 주고받지 않고 갈등도 적지만 협업은 준수하여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평가도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반면 교류네트워크에 가장 낮은 중심성을 보인 마을주민은 다른 주체와의 갈등을 많이 겪었고, 도움이나 협업에서 낮은 수준을 보여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가장 낮게 매겼다. 마을대표는 다른 주체와의 갈등을 가장 많이 겪은 주체이나 도움도 많이 주었고, 협업 순위는 낮았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점수는 마을활동가가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교류네트워크에서 마을활동가, 총괄코디와 함께 중요한 주체로 활동하고 도움이나 갈등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있지만 협업은 잘 되는 주체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마을주민보다는 높지만 중간 이하의 점수를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활동가는 다른 주체에게 도움을 가장 많이 주는 주체로, 모임도 자주하여 갈등은 적고 협업도 잘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두 번째

〈표 12〉 주체별 네트워크 중심성 값과 사업평가점수 비교

구분	중심성지수				새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점수
	교류	도움	갈등	협업	
마을주민	0,371	0,39	0,522	0,232	3,57
마을활동가	0,483	0,533	0,467	0,436	4,09
총괄코디	0,539	0,391	0,293	0,432	4,28
공무원	0,480	0,317	0,140	0,436	3,97
마을대표	0,371	0,417	0,601	0,348	4,02

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주체 간 관계네트워크 측면에서 종합해 보면 교류를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갈등을 많이 겪고 협업을 잘 한 주체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참여주체들 간의 행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일정 정도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5.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참여주체의 역할

1)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해석

〈표 13〉은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주체들 간 관계 유형인 교류, 도움, 갈등, 협업네트워크의 구조를 종합한 밀도, 집중도, 중심성 순위를 집계한 것이다. 네트워크의 밀도는 얼마나 주체 간 연결이 촘촘하냐는 의미하는 것인데, '1'이 넘으면 높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가장 밀도가 높은 형태는 도움네트워크로, 참여주체들 간 행위 중에서 도움을 가장 활발하게 주고받았다고 해석 가능하다. 반면 밀도가 가장 낮은 것은 교류네트워크로, 사업취지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측면에서는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의 밀도를 보면 도시새뜰마을사업은 주체들 간 도움이 제일 활발하고 갈

〈표 13〉 네트워크 분석 결과 종합

구분	교류	도움	갈등	협업
밀도	1,266	2,788	2,492	2,314
집중도	61.27	66.402	89.143	28.03
고립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연결중심성_1순위	마을활동가	마을주민	마을주민	옹역기관
위세중심성_1순위	총괄코디	마을활동가	마을대표	마을활동가

등과 협업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이나 회의(워크숍 포함)는 저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집중도는 주체 간 관계연결망에서 어떤 주체로의 집중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집중도가 높을수록 위계가 강한 구조로 해석된다. 집중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89.14%의 집중도를 보인 갈등네트워크로, 28.03%를 보인 협업과 비교한 3배 이상이다. 이는 갈등은 특정 주체로 집중되고 협업은 특정 주체로 집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종합해보면 주체 간 관계연결망에서 갈등, 교류와 도움네트워크는 특정 주체로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 위계적 구조를 보이고 협업관계망은 수평적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결중심성은 타 주체와의 연결이 가장 많은 주체이고 위세중심성은 연결된 주체들의 중심성을 고려한 것이다. 주체 간 교류네트워크는 마을활동가가 가장 많이 주체와 연결되어 있으나 연결된 주체의 중심성을 고려했을 때 총괄코디가 가장 중심적인 주체로 해석할 수 있다. 도움네트워크에서는 마을활동가가, 갈등은 마을대표가, 협업은 마을활동가가 각각의 관계연결망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류를 촉진시키고자 한다면 총괄코디의 행위의 강도를 높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참여주체 역할

본 절에서는 도시새뜰마을사업 초기 매뉴얼에 제시된 각 주체의 역할과

〈표 14〉 사업매뉴얼의 주요 참여주체 역할

참여주체	역할
총괄코디네이터	사업의 총괄조정자 역할, 사업추진협의회 총괄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총괄, 참여주체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 마스터플랜에 대한 주민설명 및 합의형성, 개별사업계획 수립 시 지문
마을활동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설명, 의견수렴, 주민 간 합의 유도 등 코디네이터 역할, 지역 및 주민 여건파악을 통한 지역에 필요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발굴, 행정과 주민 간 또는 주민 간 갈등조정, 주민교육 및 전문가 네트워크 역할
용역기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수립 및 작성, 사업완료 시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
주민대표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의견제시, 주민합의 형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발굴 및 제시
공무원	지자체 정책 방향 제시, 사업구역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검토 및 수정, 타 사업과의 연계 및 사회적·경제적 지원방안 모색, 마스터플랜에 대한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

자료 임정민 외(2016), 103쪽 〈표 4-2〉 일부 인용.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체들의 역할을 비교하였다. 〈표 14〉는 사업매뉴얼의 참여주체들의 역할이다. 총괄코디는 사업의 전반적인 총괄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자문과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설정하였다. 마을활동가는 주민과 행정 간 조정자 역할로, 주민설명, 의견수렴, 합의유도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이 되도록 현장조정자 역할로 설정되었다. 용역기관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담당하는 위치로 사업 초기의 주요 참여자 역할이다. 주민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마을활동가, 용역기관, 공무원, 총괄코디에게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이다. 공무원은 정책 방향, 자료제공, 행정지원, 마스터플랜에 대한 주민설명 관련 역할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총괄코디, 용역기관, 공무원이 각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참여주체 간 역할이 실제로 사업이 완료된 2015년 선정지역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표 15〉는 4장에서 분석한 4가지 유형의 관계네트워크의 위세중심성의 순위를 집계한 것이고, 〈표 16〉은 관계연결망을 통해 본 주체들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표 15〉 교류·도움·갈등·협업 네트워크 위세중심성 순위

순위	교류	도움	갈등	협업
1	총괄코디	마을활동가	마을대표	마을활동가/공무원
2	마을활동가	마을대표	마을주민	총괄코디
3	공무원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마을대표
4	마을대표	총괄코디	총괄코디	옹역기관
5	옹역기관	공무원	옹역기관	중간지원조직
6	중간지원조직	옹역기관	공무원	마을주민
7	지자체 타 부서	지자체 타 부서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타 부서
8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표 16〉 관계연결망을 통해 본 주체별 역할

주요 주체	역할
마을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주체와의 갈등이 가장 많은 주체로,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갈등인지, 소통방식, 갈등해결에 대한 교육강화 필요
마을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주체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주체이고 교류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협업도 잘 되는 주체 교류, 도움, 협업의 주요 주체로, 중간 매개자/조정자 역할강화 필요
총괄코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주체와의 교류 중심으로 타 주체와의 가교 역할/협업도 잘되는 주체 교류와 협업 측면에서 총괄코디의 정기적인 참여기회 확대 필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류주체로서의 역할, 협업이 잘 되는 주체 직접적인 사업참여보다는 지원역할을 하는 주체
옹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류, 도움, 갈등, 협업네트워크에서 역할이 부각되지 않는 주체 옹역기관이 현재 사업초기 마스터플랜에만 참여하는 점이 한계
중간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이 부각되지 않음 중간지원조직의 참여방안 검토 필요
지자체 타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이 부각되지 않음

마을대표는 사업과정에서 타 주체와 갈등이 가장 많은 주체인데, 이는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사업진행까지 대부분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실제로 단위사업의 양적 측면에서도 공동체지원사업은 종류도 다양하고 개수도 많아 주민참여의 피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교류네트워크는 저조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어, 주민협의체의 중요 주체인 마을대표는 타 주체와의 갈등을 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마을대표와 도움의 중심에 있는 마을활동가나 교류의 중심에 있는 총괄코디와의 정기적인 모임기회다.

마을활동가는 다른 주체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주체이고 교류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협업도 잘되는 주체로 나타났다. 마을활동가는 2015년 19개 지역에서만 활동하여 초기부터 활동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활동가가 교류, 도움, 협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업매뉴얼에서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마을활동가의 미흡한 지위확보나 보수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총괄코디는 교류 네트워크의 중심주체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초기부터 종료시점까지 교체 없이 참여한 점, 또한 총괄코디가 마을활동가나 공무원, 중간지원조직과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주체이기에 중요한 회의나 워크숍에 참석하는 교류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주체를 기대했던 정책목표에는 미흡한 점도 추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협업이 잘 되는 주체로 나타났는데, 매뉴얼의 행정지원 및 정책지원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업이 잘 되는 주체로 나타난 것은 마을주민이나 활동가 등이 문제(사업진행에 대한 민원, 인허가, 신규사업 조정 등)를 제기했을 때 행정적 결정과 처리를 하는 주체였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용역기관은 마스터플랜 수립 시 계획지원 전문가의 역할을 기대했는데, 분석 결과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마스터플랜 수립종료와 함께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회경제 부문계획과 실행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도 역할이 부각되지 않은 건 동일하다. 이를 보면 사업매뉴얼에서 계획·실행·운영관리의 전문가로 설정되었던 용역기관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할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6.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계획에서 사업실행 및 운영단계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형으로 설계된 정책사업인 도시새뜰마을사업을 참여주체 간 관계 연결망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주요 주체들 간 관계맺음의 형태, 교류, 갈등, 도움, 협력의 네트워크 구조를 밝혀냈고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해 각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이는 사업시작 전 만들어진 사업매뉴얼에서 규정한 주체들의 역할의 실제 작동을 증명한 것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하겠다. 또한 동일 시점에 선정된 30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주체 간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주체들의 구조적 역할규명은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행위자들의 구조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사업참여주체들이 사업초기 계획단계, 실행단계, 사업완료 후 운영단계에서의 역할변화를 추적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존의 연차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때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30개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에 개별 지역의 주체들 간 네트워크 특성은 간과되었다는 점이다. 30개 지역의 세부사업 추진과정의 차이에 따라 주체들의 역할이 상이한지도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20년 03월 31일

1차 심사완료일: 2020년 05월 25일

1차 수정완료일: 2020년 06월 01일

2차 심사완료일: 2020년 06월 16일

계재확정일: 2020년 06월 19일

최종원고접수일: 2020년 06월 23일

Abstract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Actors Involved in the Network of Urban Saetul-village Project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Kim, Hong Joo · Lee, Young Hwan · Lim, Jung Min · Paik, Hae Sun

The Urban Saetul-Village Projects is a policy project started to intensively regenerate the vulnerable areas in the city center, a blind spot of the residential support project, and was implemented by separating the city from the rural area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general coordinators, village activists, village representatives, and civil servants, who are participating as important 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rban Saetul-Village Projects. Urban Saetul-Village Projects, which started in 2015, is mostly completed in 2019, and a network of major actors was analyzed through a survey of all 30 selected areas. Through this, we analyzed whether the governance of communic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worked as intended in the initial policy-making stage in the process of actual Urban Saetul-Village Projects, and how the effect and satisfaction of the project were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demonstrated the governance structure for all of the Urban Saetul-Village Projects and clarified the role of each actors.

Keywords: Urban Saetul-Village Projects, Social Network Analysis, role of Actors, Network structure

참고문헌

- 임정민·이영환·김홍주·조필규·최원철·박보근·황영호. 2016. 『새뜰마을사업 추진체계 및 평가 방안 연구』. 대전: 토지구택연구원.
- 김홍주·임정민·이영환. 2017. 『도시 새뜰마을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 균형발전위원회.
- 이영환·백혜선·임정민·김홍주·최보미·박윤재. 2019. 『새뜰마을사업 성과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대전: 토지구택연구원.
- 이성근·김태구·이관률. 20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참여주체간 협력수준과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국토계획》, 제46권 제4호, 297-309.
- 전희재·박수영·이준혁·조재욱·강석진. 2019. 「새뜰마을 사업지역의 주민 만족도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9권 제2호, 836-837.
- 정성문·강신겸. 2015. 「커뮤니티 관광개발에서의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 구조분석:양림동 도시재생과정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제27권 제4호, 215-239.
- 박훈·이상수·김정현. 2018. 「노후 불량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의 계획과 실천 연구: 동해시 새뜰마을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8권 제2호(통권 제70집), 240-243.
- 이상수·박훈. 2019.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노후 불량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실천과 한계: 동해시 새뜰마을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제3호, 49-60.
- 강기훈·김성길. 2019.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제54권 제1호, 95-107.
- 김어진·구자훈. 2019. 「도시재생사업 주요 참여주체 변화에 따른 연결중심성 변화 특성 분석: 순천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통권 제103권, 61-78.